



([https://more.ebsco.com/KO-2021-10-19-FT-Ultimate-Package-Ad-1811753-lp.html?](https://more.ebsco.com/KO-2021-10-19-FT-Ultimate-Package-Ad-1811753-lp.html?utm_medium=email&utm_source=acad_p_ko&utm_campaign=acad_ultimate-package-ad_20211019)

[utm_medium=email&utm_source=acad_p_ko&utm_campaign=acad_ultimate-package-ad_20211019](#)).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https://www.pybook.co.kr/>).

☰ 전체기사보기 (/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 뉴스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type=sm)

오피니언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view_type=sm)

기획·연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view_type=sm)

문화예술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sm)

BOOKS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view_type=sm)

올해의 사자성어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8&view_type=sm)

기자학교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대나무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0&view_type=sm)

교수잡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1)



HOME (/) > [기획·연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 > [글로벌 오디세이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27\)](/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27)

[글로벌 오디세이] 현대판 고리대금업, 중국의 핀테크 기업

✎ 박철현 | 🕒 승인 2022.12.22 08:43 | 💬 댓글 0



글로벌 오디세이_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중국의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자회사로 알리페이, 앤트체인, 월드퍼스트를 갖고 있다.(왼쪽), 핀테크 기업은 이미 중국 깊숙히 자리 잡았다.(오른쪽) 사진=위키백과, 픽사베이

‘포용적 금융’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 등장한 담론으로 대학생, 노인, 장애인, 빈곤층,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후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16~2030년 시기 추진할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 중 하나로 확정되면서 각국 정책 담론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1)

[편입생모집] 국립군산대 2023학년...

[원장초빙]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초...

[교수초빙] 경운대학교 2023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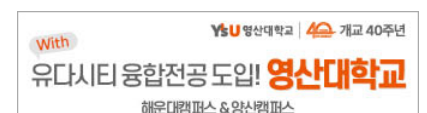
[총장초빙] 평택대학교 제8대 총장...

[연구직공무원] 국회 연구직공무원(...

[교수초빙]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기사더보기 > /news/articleList.html?](/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1)

[sc_section_code=S1N11](#)



(<https://ipsi.ysu.ac.kr/>).

‘포용적 금융’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갖추지 못한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 기존보다 탄력적이고 손쉬운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개인과 빈곤 지역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중국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사회) 건설”을 내세우면서 특히 중소기업, 농민, 도시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을 도입했다. 2016년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포용적 금융의 발전상황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포용적 금융’은 공식화됐다.

중국의 ‘포용적 금융’도 앞서 지적인 ‘포용적 금융’ 일반의 성격, 즉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의 금융접근권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보다 사회구조적 권력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포용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IT)에 기초한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국 정부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TMD(타우타오, 메이투안, 디디추싱)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을 경제적·기술적으로 지원했고, 중국 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가속화됐다.

문제는 2014년 무렵부터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확대를 명분으로 비(非)금융업 분야 민영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경영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후 알리바바의 신용평가 플랫폼 ‘즈마신용’이 중국 정부의 공식허가를 취득한다.

특히 알리바바의 금융부문인 앤트파이낸셜은 중국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담론에 힘입어 중소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소액대출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들 서민층은 문턱이 높은 국유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었지만, ‘포용적 금융’ 정책 담론이 확산되고 중국 정부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침이 실현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이들 핀테크 기업의 소액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www.gnto.or.kr/mice/>).

중요한 것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포용적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기업의 소액대출상품은 사실상 ‘인터넷 고리대금업’이었다는 점이다.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자가 매우 높다.

앤트파이낸셜의 대표적인 소액대출상품 ‘제베이’의 대출금액은 1천~5만 위안이며, 대출기한은 12개월 미만, 이자율은 최고 16.4%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소액대출상품의 주요 이용자는 중소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들 핀테크 기업은 소규모 자본금이지만, 소액대출 채권을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만든 후 이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다시 소액대출을 시행해 그 채권으로 다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또 다시 소액대출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앤트파이낸셜은 30억 위안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그 100배가 넘는 3천600억 위안의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비록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앤트파이낸셜의 본질은 ‘자산유동화 증권’을 활용해 확보한 금융기관의 돈으로 중소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 고리대금업체였던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포용적 금융’ 정책 담론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인터넷 고리대금업 업체는 ‘P2P 대출업체’라고 불렸다.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을 창출하면서 급성장해 한때 5천개가 넘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을 무기로 큰 수익을 거뒀다.

평택대학교
총장 초빙

접수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1월 27일(금)

(<https://www.ptu.ac.kr/www/407/subview.do?enc=Zm5jdDF8QEF8JTGyMjZlTGd3d3JTGGM>)

대구보건대학교는 **코사국예도**
취업률 No.1

형사 신입생 모집 일정 2022. 12. 29.(목) ~ 2023. 1. 12.(목)

(<https://www.dhc.ac.kr/iphak>)

취업률 전국 1위

2017~2022 교육부 발표(대학경쟁력지수 기준) (졸업생 3,000명 이상 전문대학)

(<https://ipsi.yju.ac.kr/ipsi/index.do>)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https://ipsi.wku.ac.kr/>)

가장 많이 읽은 기사

- 1 [멀고 험거운 여성 연구자의 꿈](#) (/news/art...
- 2 [교대 총장, “학·석사 연계 5·6년제 모델로...](#)
- 3 [한양대 제16대 총장에 이기정 교수 선임...](#)
- 4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서정호 대학원생...](#)
- 5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
- 6 [극동대 간호학과, 전국 글로벌리더십 프...](#)
- 7 [제주대,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new...
- 8 [동서대 LINC 3.0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
- 9 [안중근](#) (/news/articleView.html?idxno=9...
- 10 [신성대학교, 외국어 스피킹 경진대회 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수신문 공동기획

[더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3&view_type=sm).

고용노동부
교수신문 공동기획

[더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4&view_type=sm).

실시간 뉴스

수원여대, PB파트너즈 산학협력 협약 체결
([/news/articleView.html?idxno=99666](#)).

한국외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1기 진
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개...

대구교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DNU
교육성과포럼」개최...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2RC 사도교
육과정 성과확산 워크숍'개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2020년 11월 엔트파이낸셜을 비롯한 빅테크 3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결국, 중국의 '포용적 금융'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중국 런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관심 분야는 중국 동북지역의 공간생산, 국유기업 노동자, 동북지역의 '역사적 사회주의' 등이다. 주요 저작으로 『다렌연구: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진인진, 2016)』(공저) 등이 있다.

Tag ▶ [#고리대금업 \(/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고리대금업\)](#)
[#핀테크 \(/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핀테크\)](#)
[#글로벌 오디세이 \(/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글로벌 오디세이\)](#)
[#박철현 \(/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박철현\)](#)
[#국민대 \(/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국민대\)](#)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박철현 (<mailto:editor@kyosu.net>)
[다른기사 보기](#)

“보물창고를 넘어 우리의 꿈과 미래를 담기 위한 박물관으로”

역사와 문화, 예술을 이해하는 '꿈의 통로' 박물관

‘꿈의 박물관’은 전 세계의 박물관 외경과 내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보여준다. 해외 유수의 박물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박물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중 선 제 | 356페이지 | 크라운판 | 28,000원 | [확실히책사](#)



꿈의 박물관

관련기사

- [\[글로벌 오디세이\] 낙후된 일본 여성평등지수...](#)
- [\[글로벌 오디세이\] 왕의 귀환, 돌아온 롤라...내...](#)
- [\[글로벌 오디세이\] 제2의 인더스 문명, 서구 세...](#)
- [\[글로벌 오디세이\] 동지중해 문명과 미학의 정...](#)
- [\[글로벌 오디세이\] X인자'로 팬데믹 극복?...성공...](#)
- [\[글로벌 오디세이\] 좌파 집권의 붉은 물결, 핑크...](#)
- [\[글로벌 오디세이\] 모디 정권에서 혐오 표현은 ...](#)
- [\[글로벌 오디세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 아프리...](#)
- [\[글로벌 오디세이\] 걸프 지역의 박물관 어벤저...](#)
- [\[글로벌 오디세이\] 파라과이의 한류...일본의 길...](#)
- [\[글로벌 오디세이\]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해주는...](#)
- [\[글로벌 오디세이\] 인도 출신, 정재계에서 맹활...](#)
- [\[글로벌 오디세이\] 일생에 반드시 한번, 무슬림...](#)
- [\[글로벌 오디세이\] '우향 우' 외치는 이스라엘...](#)
- [\[글로벌 오디세이\] 카자흐스탄 방위산업, 전투...](#)
- [\[글로벌 오디세이\] 중국의 당근과 채찍, 대만을...](#)
- [\[글로벌 오디세이\] 아랍 서예의 아름다움, 디지...](#)
- [\[글로벌 오디세이\] UAE 대 이란, 데탕트 시대 도...](#)
- [\[글로벌 오디세이\] 불가리아가 유럽으로 회귀하...](#)
- [\[글로벌 오디세이\] 한중관계 30년, 중국은 한국...](#)
- [\[글로벌 오디세이\] 포스트 아베, 기시다의 '조율...](#)
- [\[글로벌 오디세이\] 중동에 부는 경제개발 바람...](#)
- [\[글로벌 오디세이\] 갈 곳 잃은 유럽연합, 국제사...](#)
- [\[글로벌 오디세이\] '격동-혼돈'의 중동...올해 정...](#)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news/articleView.html?idxno=98243&replyAll=&reply_sc_order by=i#reply\)](#)
[추천순 \(/news/articleView.html?idxno=98243&replyAll=&reply_sc_order by=C#reply\)](#)

Promoted Contents



Partner

Partner

Partner

[최춘식 국회의원, 대전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안양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졸업생 초청](#)
[진로 탐색 세미나 열어...](#)



Partner



Partner



Partner

교수신문

교수신문 소개 (/com/com-1.html) 구독신청 (/com/kd.html) 뉴스레터신청 (/com/com-9.html) 기사제보 (/com/jb.html) 광고문의 (/com/ad.html)
불편신고 (/com/bp.html) 개인정보취급방침 (/com/privacy.html) 청소년보호정책 (/com/youthpolicy.htm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m/emailno.html)

RSS (/r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1 (승현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142-4111 | 팩스 : 02-3142-4118

명칭 : 교수신문사 | 제호 : 교수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64 | 등록일 및 발행일 : 1992-04-15 | 발행인 : 이영수 | 편집인 : 이덕환 | 편집국장 : 김봉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호

Co (http://www.kyosu.net/admin/adminLoginForm.html)pyright © 2023 교수신문. All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8243)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kyosu.net

(mailto:editor@kyosu.net)

ND (http://www.ndsoft.co.kr/)